‘조선불교통사’ 93년만에 한글화

동국대 출판부 역주편찬위원장 법산 스님 “불교학 · 인문학 발전 일대 전기”

불교 종합사서(史書)로서 가장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가 93년 만에 한글로 완역됐다.

동국대 출판부는 9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역주 조선불교통사>(전 8권) 출간을 밝혔다.

<조선불교통사>는 상현거사 이능화가 편찬 저술하고 육당 최남선이 교열한 한국불교 최초의 종합역사서이자 불교백과전서이며, 선사들의 저작물을 담고 있는 불교전집이다.

<조선불교통사>는 372년 순도(順道 · ?~?)가 고구려에 불교를 전한 이래 <불교통사>의 원고가 마무리되는 1916년까지 1544년에 이르는 한국불교사를 집대성한 역사의 보고(寶庫)다.

역주편찬위원장이자 연구책임을 맡은 법산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은 “이 책이 한문으로 기술 돼 있어 한글세대가 자료를 활용해 연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인식한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에서 2002년에 역주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역주 사업을 진행해 8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선불교통사>는 일본, 중국, 세계의 불교학자들이 한국불교 연구에 있어 필수적인 자료로 인식할 만큼 독보적인 자료다.

또한 문학 · 사학 · 철학 등 인문학 연구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인용되고 있다.

특히 <불교통사>에 실려 있는 고승들의 비문과 사적기(事蹟記)들은 일차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법산 스님은 “<조선불교통사>는 그 방대한 분량과 난이도 때문에 부분적인 번역서가 나오거나 연구논문에 일부 발췌 인용되긴 했으나 그 전체를 본격적으로 조망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번에 완역된 전집의 출간으로 인해 불교학 발전의 일대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선불교통사>는 상편(불화시처) 2책, 중편(삼보원류) 1책, 하편(이백품제) 3책, 원문 교감본 개정판 1책, 색인집 1책 등 총 8권의 책으로 구성돼 있다.

‘불화시처’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락국, 고려, 조선, 조선총독부 시대까지의 한국불교사를 편년체 형식으로 기술했다. ‘삼보원류’에서는 인도와 중국 불교의 역사와 종파, 불조(佛祖)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이백품제’는 불교에 관한 다양한 관심사를 망라하고 있다.

<조선불교통사>의 내용 중에는 이 책에만 수록돼 있는 유일한 자료가 있다. 바로 ‘미륵불광사 사적(彌勒佛光寺事蹟)’이다. 여기에는 겸익의 인도 구법과 범본 율장의 전래에 관한 내용을 싣고 있어 백제불교의 계율과 그 국제적 위상을 밝히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된다.

<조선불교통사>의 내용 중 3분의 1은 조선시대 불교를 다루고 있어 얼마 되지 않은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학계에 큰 자양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집에서 이능화가 조선의 선을 임제 적통설로 지지하고 조선 후기 선문 논쟁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그가 직접 세목으로 추린 주요인물은 266명으로 고구려가 17명, 백제 20명, 신라 65명, 고려 71명, 조선 93명으로 조선시대 인물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불상과 탑 등의 유물 213건(고구려 4건, 백제 4건, 신라 5건, 고려 60건, 조선 90건)을 세목으로 추려 적시했다.

이 밖에 <조선불교통사>는 훈민정음의 어법 원류가 범어(梵語)에서 왔다는 논지를 펴는 등 훈민정음의 창제 과정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김진무 부교수는 “이러한 의견은 일찍이 국어학계에서 주목한 바가 있지만 그 전문이 번 · 소개되는 것은 이 전집이 처음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관련연구자들이 한 번도 언급조차 하지 않은 석굴암 조성에 관한 내용을 비롯해 불교미술사 분야의 다양한 기록과 자료가 수록돼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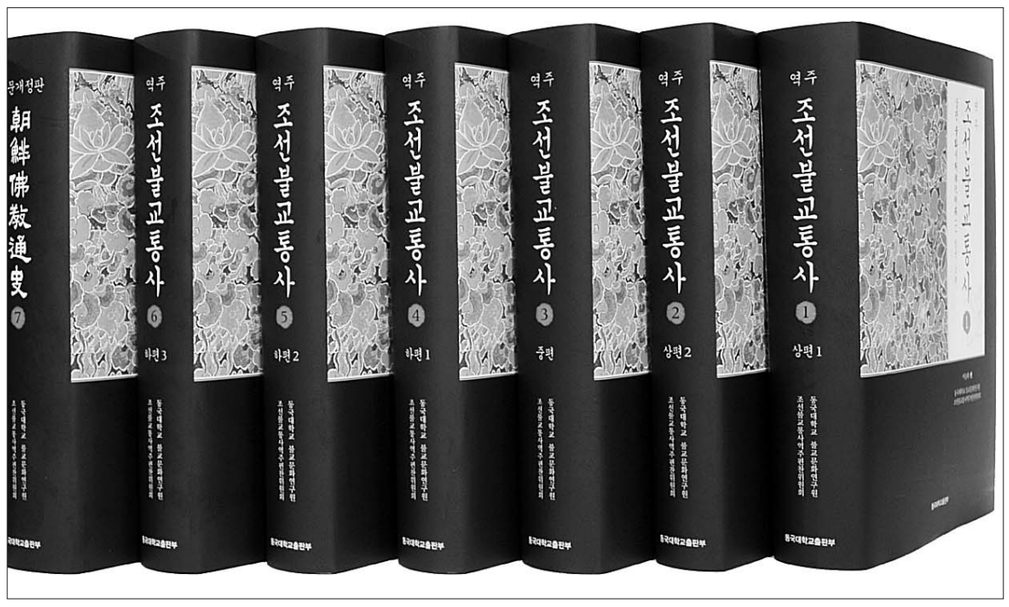
전집에서는 한국종교를 불교, 신교(神敎), 도교, 유교, 기독교 등 다섯 개로 파악하고, 한국사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불교 · 유교 · 기독교를 비교종교학적인 시각에서 비교 · 고찰했다.

이 외에도 민간에 전래되거나 역사서에 언급된 사찰들의 연기(緣起)설화, 승려와 관련된 신이(神異)한 괴담, 각종 민속과 풍습, 제도 등이 다양하게 수록돼 문화콘텐츠의 보고로서 활용가치가 높다.

한편, <조선불교통사> 역주사업은 2002년에 한국연구재단의 국학분야 기초학문육성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이래 법산 스님을 연구책임으로 해 효탄 스님(조계종 문화부장), 김진무 부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한상길 연구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김치온(동국대 강사), 류화송(충남대 강사) 등 박사급 연구 인력이 역주위원으로 참여했다.

김진무 부교수는 “난해한 금석문과 방대한 불교문헌자료로 이루어진 문장의 번역과 주석, 해제연구에 5년의 기간이 걸렸으며, 원문 교감과 증의를 거친 오탈자 교정과 통일 윤문, 편집 등에 이르기까지 총 8년에 걸쳐 심혈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이능화가 편천하고 최남선이 교열한 <조선불교통사>는 고대부터 고려 · 조선 · 저술 완성 당시인 근대(1916년)까지의 한국불교사를 총망라하고 있다.

훈민정음 창제 · 석굴암 조성과정 밝혀 주목

이능화 저술 · 최남선 교열한 문화의 보고

조선후기 불교 쇠퇴 아닌 활성화

김용태 교수 “식민시대 부정적 인식이 연구 전형으로 자리잡아”

불교사 다시 써야
현존 사찰 대부분
조선 후기에 중창

조선후기 불교는 성리학에 의해 억압받고 쇠퇴를 거듭했다는 부정적 선입견이 일반인은 물론 학계에서도 공통의 의식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학계에서는 조선시대에 불교가 주류질서에서 완전히 밀려났음을 전제로 ‘한 편의 불교 쇠망사’라고 규정했고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이후 연구에서 하나의 전형이 됐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조선후기 불교의 실상은 자활의 모색을 통해 존립을 유지했고 전기에 비해 훨씬 활성화 된 모습을 보였다. 현존하는 사찰의 대부분은 조선후기에 중창, 중수됐고 불서의 간행이 빈번히 이뤄졌으며 수행체계와 법통의 정립, 강학의 성행과 교학의 전수, 사원 경제의 기반 확대와 상속, 염불 정토신앙의 성행 등 쇠퇴나 멸절로 볼 수 없는 다양한 양상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조선시대 불교의 쇠망 · 쇠퇴론이 지배적으로 자리 잡았을까.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김용태 연구교수는 최근 발간한 학술서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임제법통과 교학전통>(신구문화사 刊)에서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입론은 식민지기에 형성됐고 ‘억압과 쇠퇴’라는 부정적 인식이 이후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교수에 따르면 조선시대 ‘숭유배불’ 정책이 집중 부각된 것은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개괄적 정리와 성격 규정 및 자료수집정리가 진행되던 1910년대 초부터였다.

1911~1912년에 걸쳐 <일본 불교사학(佛敎史學)>에 연재된 후루타니 기요시(古谷淸)의 <조선이조불교사개설(朝鮮李朝佛敎史槪說)>이 그 효시다. 여기서 후루타니 기요시는 부녀자 및 산촌벽읍의 서민 신앙을 조선시대 불교의 특징으로 주목했다.

김 연구교수는 “조선불교의 부정적 인식은 이후 연구에서 하나의 전형이 됐다. 역사학, 불교학, 종교학 등 분야를 막론하고 억불 정책, 사상의 쇠퇴, 기층의 기복신앙에 초점을 두어 조선시대 불교를 설명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김용태 연구교수

이외에 다카하시 토오루라는 일본학자는 1929년 <이조불교>를 집필해 체계적인 조선 사상사의 구축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의 불교사 인식, 나아가 한국사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부정적인 편견이 깔려 있었다. 김 연구교수는 “다카하시는 <이조불교>에서 ‘한국불교가 중국불교의 이식일 뿐이며 그 내용이 소략하고 제한적’이라고 해 사상 면에서 한국불교의 가치를 평가절하 했다. 나아가 한국불교의 역사적 특징을 ‘의타성’과 ‘정체성’으로 규정했고 사회적, 사상적 측면에서 불교가 크게 위축됐음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교수는 책에서 쇠퇴론적 시각의 시기구분론과 교학의 침체기라는 고정관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다카하시는 불교가 억압을 받기는 했지만 그나마 국가의 공인을 받아던 성종대까지를 제1기, 공식적 폐불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교법이 아직 쇠퇴하지 않았고 명승도 다수 배출된 연산군에서 인조대까지를 제2기로 보고 효종대 이후 제3기는 교세가 완전히 몰락했을 뿐 아니라 승려가 경멸을 받고 불법이 없어진 시기로 규정했다.

이 3단계 시기 구분론은 당시는 물론 이후 연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김 연구교수는 “3단계 시기 구분론이 과연 역사적 실재를 반영한 타당한 인식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만일 그것이 역사성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식민지기의 선험적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마땅히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연구교수는 조선후기 나타난 불교 활성화 양상을 반영했다. 조선 개국 후 성종대인 15세기 말까지를 억불기, 16세기 전반의 연산군과 중종대를 폐불기, 양종이 일시적으로 복립되고 임진왜란을 겪었던 16세기 후반을 존립모색기, 17세기 이후를 존립기로 나누는 것이다. 즉, 쇠퇴론과 부정론을 대신해 존립의 실상과 시대상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조선후기 불교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김 연구교수의 견해다.

<이조불교> <조선불교사>등에서는 조선시대는 신앙에서만 불교의 특색을 찾을 수 있으며 명목상 선종을 위주로 한 결과 교학은 침체되고 불교가 시대사상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평가했고 이를 쇠퇴와 비주류의 중요한 논거로 삼았다.

이에 대해 김 연구교수는 “조선시대에 성리학이 주류사상이 된 것은 당시 동아시아 사상사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따라서 보편론의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이지 유독 조선시대 불교에만 교학 쇠퇴와 비주류의 멍에를 뒤집어씌우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정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연구교수는 교학의 쇠퇴라는 전제하에 조선시대 불교를 선종 위주로, 그것도 간화선 수행 전통만을 부각시키는 학계 일반의 이해는 전통의 외연을 크게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았음을 지적했다. 김 연구교수는 “조선시대 불교는 고려불교와 근현대불교를 이어주는 정체성의 가교로서 그 의미를 지니며 선과교, 신앙과 의례 등 다양한 방면의 전통과 그 계승을 논할 때보다 풍요로운 한국불교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태 연구교수의 <조선후기불교사연구>는 <이조불교>이후 조선시대 불교사 전체를 조망한 첫 개설서이기도 하다.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문제 제기와 상식의 재고, 자료 발굴과 새로운 사실의 규명, 인식과 관점의 전환 등 일정한 연구사적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나은 기자

제39차 운문승가대학 동문회 및
학장스님 법문집 출판기념회

황금빛으로 물든 은행나무가 여러 선 · 후배스님들을 초대합니다.
동문스님들을 모시고 운문도량에서 아래와 같이 동문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동문회에서는 학장스님의 법문집과 서간문 및 자서전 출판기념회가
있을 예정이오니,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일 시 | 불기2554(2010)년 9월 27일 오후 2시
장 소 | 운문사 삼장원
안 건 | 운문사 모교발전의 건
문의전화 | 054)372-8800 (운문사 종무소)
010-3045-4660 (동문회장)

운문승가대학 총동문회장 행법 합장

청암사승가대학 총동문회

삼보에 귀의합니다.
유난히 무덥고 장마가 길었던 여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문여러분 청안하십니까?
잠시 일상을 접어두고 지쳐 있는 심신을 정겨운 선후배님들과 함께
추억을 되살리며 청암의 품에서 좋은 날 보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올해부터 동문회 날짜가 변경 되었습니다.

■일 시 : 불기2554년(2010)년 10월2일 토요일 5시
■장 소 : 청암사
■총동문회의 : 저녁 7시
■전 화 : 054)439-9511 (청암사)

청암사승가대학 총동문회장 도림 합장